

2021

내신 기출

국어 신사고 (상편)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 내신 기출 국어, 신사고-상편 ◀

1. 문학, 쓰기, 읽기와의 첫 만남

(1)

- ❶ 자화상 (55문제)-----1쪽
- ❷ 최적전 (51문제)-----20쪽

(2)

- ❶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40문제)-----48쪽
- ❷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 (30문제)-----69쪽

2. 상황과 대상에 맞게 표현하기

- (1)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 (33문제)-----82쪽
- (2)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69문제)-----96쪽

3.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

- (1) 첫사랑 (36문제)-----118쪽
- (2) 돌다리 (46문제)-----133쪽
- (3) 성난 기계 (30문제)-----159쪽
- (4) 상기 (31문제)-----180쪽

4.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언어생활

(1)

- ❶ 음운의 변동 (63문제)-----201쪽
- ❷ 한글 맞춤법의 원리 (65문제)-----221쪽

◆빠른 전체 정답-----239쪽

◆해설-----242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내신 기출 국어, 신사고-상편◀

()학기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학기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국어, 신사고-상편 ◀

내신 준비 가이드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은 난이도가 낮은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도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로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않는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로 쓴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 내신 기출 국어, 신사고-상편 ◀

Q. 선행 필요한가?

▶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의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홈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Q.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Q. 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딱 뿌러지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 이걸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망망의 숲 한없이 된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풀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이를 마음에 풀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매번 확인서>

나는 이번 () 교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 교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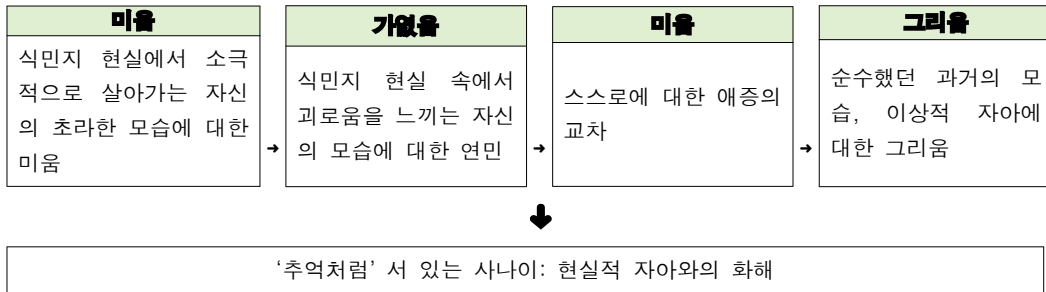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자화상”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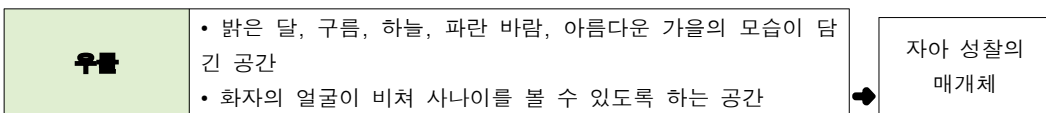
◆핵심 정리

화자	외딴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미움, 가엾음, 그리움을 느끼다가 분연된 자아와 화해함.
제목 및 시어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화상: 스스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는 의미 • 우물: 자아성찰의 매개체 • 사나이: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현실의 초라한 자아) • 자연: 초라한 자아와 대조되는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조화로운 대상
어조	고백적, 독백적
표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를 열거법을 통해 표현함. • 2연의 장면이 6연에서 변형·반복됨으로써 구성에 안정감을 부여함.
시대적 배경	일제 강점기
주제	자아 성찰과 암울한 현실 속 자신에 대한 애증(愛憎)

1.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감정 및 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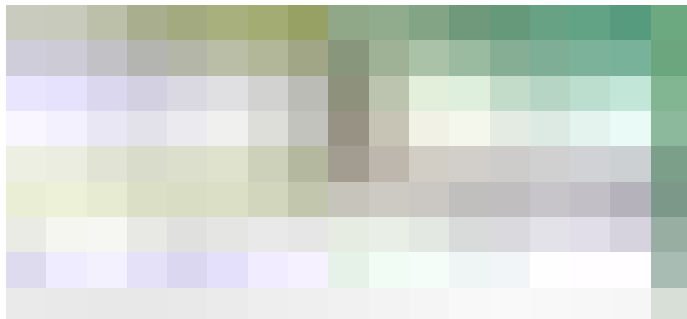


2. 시어의 상징성



3. 율동주의 '자화상'과 이육사의 '결정' 비교

	율동주, '자화상'	이육사, '결정'
어조	종결 어미 '~습니다' 등의 사용을 통해 고백적 어조를 형성함.	현재형 시제 및 강력하고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의지적 어조를 형성함.
태도	부정적 현실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 성찰적 태도를 지님.	극한적 상황에 몰린 상태에서 희망을 추구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를 보임.



“자화상” 크라신 시

1. 다음 부분을 중심으로 화자와 ‘사나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외딴 우물에서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다. • ‘사나이’는 누구인가? → 화자 자신이다.

2. 이 시에서 ‘우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 화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3. 이 시의 제목을 ‘자화상’이라고 지은 까닭을 생각해 보자.

→ 자신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4. 이 시에서 화자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상 전개 과정에 따라 정리해 보자.

행위	우물을 들여다봄.	⇨	돌아가다 생각함.	⇨	도로 가 들여다봄.	⇨	다시 돌아가다 생각함.	
정서		미움		가엾음		미움		그리움

5. 화자의 행위 양상과 정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 보자.

행위 양상과 정서 변화의 의미	자신에 대한 미움과 가엾음과 미움의 정서를 거쳐, 그리움에 도달하는 자기 발견과 긍정의 과정을 나타낸다.
------------------	--

6. 다음 부분에서 자연이 화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 화자가 ‘사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연의 의미	‘사나이’에 대한 인식
아름답고 조화로운 질서를 지니고 있음.	아름답고 조화로운 질서를 지닌 자연과 달리, 어두운 현실 속에서 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미워함.

1-(1) ❶ 자화상 [이론편]

7. 다음 시구에서 화자가 '사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위에서 살펴본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비교해 보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자신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과 떨어져 존재한다고 인식하던 데서 벗어나 자신이 자연 속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화자가 '사나이'에 대한 미움과 가여움의 심리적 갈등상태로부터 자기 긍정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8. 2연과 6연을 중심으로 이 시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파악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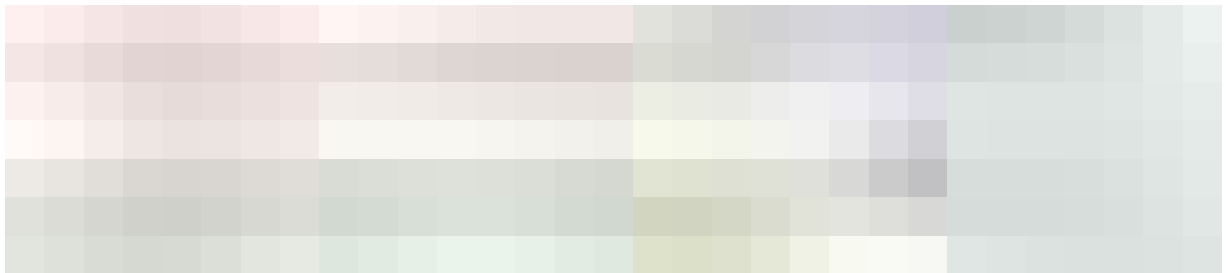
표현상의 특징	효과
열거법, 반복법, 점층법 →	열거법을 통해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있고,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6연에서 '추억처럼'을 첨가하여 의미를 점층적으로 심화함으로써 화자의 성숙 과정을 짐작케 하고 있다.

9. '자화상'과 '절정', 두 시를 비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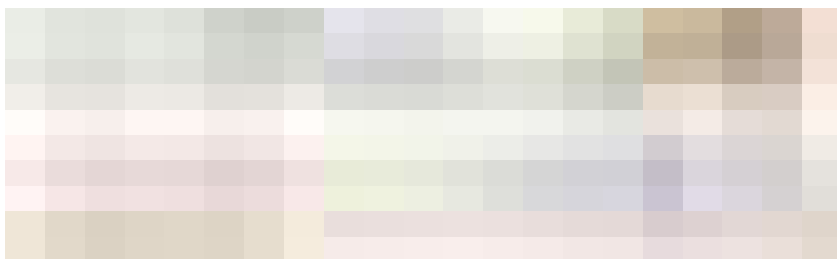
	'자화상'	'절정'
어조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고백적인 어조가 드러난다.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여 단정적인 어조가 드러난다.
태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성찰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현실의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자화상” 읽음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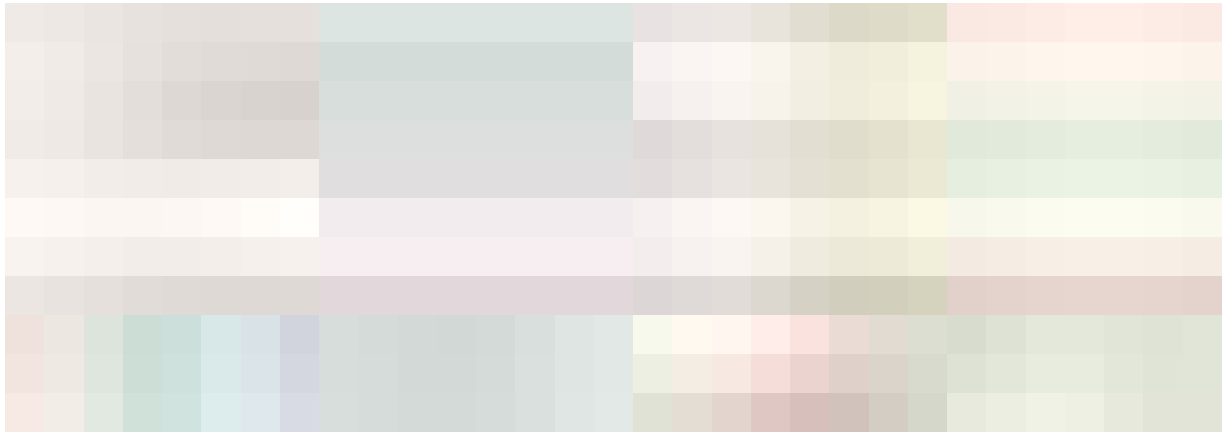
1)



2)



3)



▶ **홈피 자료실 파일 다운로드** ◀

- 출제 예상 연계 작품 정리
- 답 제거된 문제 반복 연습 파일
- 각종 시험 대비 자료 (기본문제, 자습서 등)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나)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이육사, <절정>

광신고등학교 (서울)

1. (가)와 (나)의 시적화자의 어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 독백적 어조 (나) : 지사적 어조
- ② (가) : 냉소적 어조 (나) : 독백적 어조
- ③ (가) : 의지적 어조 (나) : 사색적 어조
- ④ (가) : 여성적 어조 (나) : 염세적 어조
- ⑤ (가) : 관조적 어조 (나) : 남성적 어조

광신고등학교 (서울)

2. (가)의 밑줄 친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가 들어 있지 않은 것은?

①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려만거울
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
소.//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만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
있소./잘은모르지만의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거울속의나
는참나와는반대요만/또꽤달았소./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
고진찰할수없으니꼭섭섭하오.

- 이상, '거울'

② 잘 보이지 않아//네게 기뻐더니//이젠 너무 잘 보여 아득
하고 알망스럽다//계다가 여태 몰랐던 감사한 나도 보인다.

- 윤경희, '돋보기'

③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봄부터 소쩍새는/그렇게
울었나 보다.//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노오란 네 꽃잎
이 피려고/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내게는 잠도 오
지 않았나 보다.

- 서정주, '국화 옆에서'

④ 감나무에 감꽃이 지고 나더니/아프게도 그 자리에 열매
가 맺네/열매는 한참 쑥쑥 자라고/그것이 처음에는 눈이
부신/반짝이는 광택 속/선연한 푸른빛에서/조금씩 변하더
니 어느새/붉은 홍시로까지 오게 되었더니라.//가만히 보
면/한자리에 매달린 채 자기 모습만을/불과 일 년이지만
하늘 속에/열심히 비추는 것을 보고, 글썽./말 못하는 식
물이 저런/똑똑한 체 잘도 떠돌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
다가/자기 모습을 남기는가 생각해 보니/허무라는 심연밖
에 없더니라./아, 가을!

- 박재삼, '홍시(紅柿)를 보며'

⑤ 산에는 꽃이 피네/꽃이 피네/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산에//피는 꽃은/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꽃이 좋아/산에서/사노라네.//산에는 꽃
지네/꽃이 지네/갈 봄 여름없이/꽃이 지네.

- 김소월, '산유화'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광신고등학교 (서울)

3. (가)의 밑줄 친 ㉠파아란 바람에 사용된 이미지와 같은 것이 들어 있는 것은?

- ① 창망한 물굽이에/금시에 지워질듯 근심스레 또 있기에/
동해 쪽빛 바람에/항시 사념의 머리 곱게 씻기우고
- 유치환, '울릉도'
- ② 그/수없이 입술이 달은/이 빠진 낡은 사발에/나도 입술
을 댄다./흡사/정처럼 올라오는/맛걸리 맛
- 김용호, '주막(酒幕)에서'
- ③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길이,/개울물 돌돌돌
길쭉으로 흘러가고,/백양 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
구요.
- 김상옥, '사향(思鄕)'
- ④ 내 마음은 나그네요/그대 피리를 불어 주오./나는 달 아
래 귀를 기울이며/호젓이 나의 밤을 새이오리다
- 김동명, '내 마음은'
- ⑤ 이는 먼/해와 달의 속삭임/비밀한 울음//한 번만의 어느
날의/아픈 피 흘림.
- 박두진, '꽃'

광신고등학교 (서울)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제목 '자화상'은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찰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 ② (나)는 극한적인 상황인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로
인식하며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관조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가)의 우물 속에 비친 '사나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
는 초라한 화자의 모습을 의미한다.
- ④ (나)의 1, 2, 3연에서는 화자가 처한 혹독한 상황을 제
시하고 있고, 4연에서는 화자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
다.
- ⑤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
이 전개되고 있다.

광신고등학교 (서울)

5. (나)의 밑줄 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는
표현 및 발상이 가장 유사한 시어를 고르시오.

- ① 얇은 사(絲) 하이얀 고깔은/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② 조국을 언제 떠났노./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 ③ 내 마음을 아실 이/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 ④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흔드는
- 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광신고등학교 (서울)

6. (나)에서 시적화자가 처한 상황을 암시하면서, 차갑고
혹독한 이미지를 지닌 시어(2어절 이내)를 찾아 다섯 개
쓰시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신 가
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
습니다.

-윤동주, <자화상>

(나)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이육사, <절정>

서문여자고등학교 (서울)

7. (가)를 【보기】의 밑줄 친 관점에 따라 해석한 사람은?

< 보 기 >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관점은 크게 내재
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내재적
관점이란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도 하며 어조, 운
율, 표현 기법 등 작품의 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이다. 한편 외재적 관점이란 작가, 독
자, 현실과 같은 작품 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작
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관점이다.

- ① 연서: 시상 전개에 따라 화자의 심리가 분명한 변화
를 보이고 있군.
- ② 하은: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은 겨울처럼 자신
을 비추며 자신을 성찰하는 행위야.

- ③ 병재: 2연의 표현이 6연에서 유사하게 나오면서 구성
상 안정감과 균형감을 부여하고 있군.
- ④ 담률: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 상황에서 화자는
현실과 타협, 안주하려는 자신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군.
- ⑤ 진영: 우물 속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화자의 초라한 자아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군.

서문여자고등학교 (서울)

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특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의 변화를 표현하
고 있다.
- ②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주제를 부각하였
다.
- ③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
러내고 있다.
- ④ 청각적 심상을 지닌 소재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
의 모습을 나타낸다.
- ⑤ 평이한 구어체를 사용하여 산문적으로 표현하고 있
다.

서문여자고등학교 (서울)

9. (가)의 ㉡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어를 【보기】의 밑줄
친 말 중에서 찾으시오.

< 보 기 >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길-

서문여자고등학교 (서울)

10. 다음은 (가)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완성하시오.

‘자화상’은 2연에서 6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6연은 2연과 달리 ‘추억처럼 사나이’를 첨가하여 의미를 심화하는 (㉠)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라는 표현은 기존의 문법적 질서에서 벗어난 표현으로 이는 서정적 분위기나 운을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서문여자고등학교 (서울)

11.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반부에서는 시적상황이 제시되고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화자의 의식이 제시된다.
- ②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초극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절제된 시행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긴박감을 더하고 절대 극한의 상황을 생생히 표현한다.
- ④ 이질적인 대상들을 연결함으로써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서문여자고등학교 (서울)

12. 다음 중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산이 날 에워싸고 /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 구름처럼 살아라 한다 / 바람처럼 살아라 한다.
-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 ②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 흐르는 구름 / 머언 원뢰 /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 유치환, ‘바위’
- ③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 김춘수, ‘꽃’
- ④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웅졸하고 욕을 하고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⑤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 빛 발하는 눈발들이 속절없이 /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 울엄매야 울엄매

- 박재삼, ‘추억에서’

서문여자고등학교 (서울)

13. (나)의 밑줄 친 말 중 함축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서문여자고등학교 (서울)

14. 다음 중 (나)의 화자의 어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감상적이고 걱정적인 어조를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경어체를 사용하여 진지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간결하고 단정적인 어조로 화자의 굳은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부정어로 문장을 종결하며 비굴하게 순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⑤ 명령형 종결어미를 통해 대상에 대한 객관적 거리감을 유지한다.

서문여자고등학교 (서울)

15. (나)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와 동일한 수사법이 사용된 구절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푹푹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어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워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울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①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 <자화상>

(나)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밖에
①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이육사, <절정>

청덕여자고등학교 (서울)

16.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작품 모두 제목이 직설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 ② 두 작품 모두 계절적 배경이 부정적 현실을 상징한다.
- ③ 두 작품 모두 시상 전개에 따라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변화한다.
- ④ (가)의 화자가 낙관적인데 비해, (나)의 화자는 비관적 태도를 보인다.
- ⑤ (가)에는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있고, (나)에는 자기 비판의 계기가 드러난다.

청덕여자고등학교 (서울)

17. (가)의 2,3연과 6연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연’과 ‘사나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서술하십시오.

목동고등학교 (서울)

18.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 ①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해소된 조화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시적 화자의 의도한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발견한 가치를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있다.

목동고등학교 (서울)

19. (가)와 <보기> 시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 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길>

- ① (가)와 <보기> 모두 색채의 대비를 통해 내적자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보기> 모두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대상 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보기> 모두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매개를 통해 시적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보기>는 극복해야 할 대상을 설정하여 어둡고 암울한 당시의 시대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보기>와 달리 (가)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 울감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목동고등학교 (서울)

2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에 모두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시적화 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사물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 강인한 의 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종결어미 '-ㅂ니다'를 사용하여 고 백적인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성찰을 통해 시적화자가 자신의 애 증상태로부터 자기 긍정에 도달하고 있다.

목동고등학교 (서울)

21. 다음의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극한적 현실의 공간적 한계를 표현하는 시어 두 개를 (나)에서 찾아 쓰시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없는 날이여!
 -이육사, <꽃>

가림고등학교 (인천)

22. (가)와 (나)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고백적인 어조가 드러나는 반면에 (나)는 단 정적인 어조를 통해 강인한 의지가 드러난다.
- ② (가)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성찰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반면에 (나)는 현실의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 자 하는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나)는 상징적인 시어가 많이 사용되며 한시의 '기- 승-전-결'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상 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 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 습니다.

-윤동주, <자화상>

(나)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이육사, <절정>

문일고등학교 (서울)

23. (가)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을 '사나이'로 객관화하여 드러낸다.
- ② 화자는 우물 안에 비친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
- ③ 시상 전개에 따라 화자의 정서와 인식이 바뀌고 있다.
- ④ 현실에 대한 체념을 담담하게 표현 하고 있다.
- ⑤ 반복적 표현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문일고등학교 (서울)

24. (가) 시의 시적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에 대한 복잡한 심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본다.
- ②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소통 부재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④ 암울한 현실을 원망하여 이상세계를 추구하려 한다.
- ⑤ 자연 친화적 삶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잊고자 한다.

문일고등학교 (서울)

25. (나)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에 생동감을 주고 있다.
- ② 상징적 시어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수미상관 구조를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공감각적 표현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문일고등학교 (서울)

26. (가) 시와 (나) 시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① 태도	성찰적	의지적
② 어조	고백적	단정적
③ 표현	열거법	반어법
④ 갈래	서정시	저항시
⑤ 주제	현실 속 자신에 대한 애증	현실 상황에 대한 초극 의지

문일고등학교 (서울)

27. (나) 시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 ② 광물성 이미지를 통해 흑독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추측으로 자신의 생각을 반신반의 하고 있다.
- ④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면서도 자기 위안을 하고 있다.
- ⑤ 화자가 처한 상황을 자연물과 연결하여 표현하고 있다.

- ㄱ. 시각-눈으로 보는 것 (푸른 산, 높은 하늘, 빨간 꽃)
- ㄴ. 청각-귀로 듣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 ㄷ. 미각-혀가 느끼는 맛 (쓰디쓴 약)
- ㄹ. 후각-코로 맡는 냄새 (향기로운 꽃)
- ㅁ. 촉각-피부의 느낌 (서늘한 옷자락)

2. 빈출 비유법 (★★★)

- 1) 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2) 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 3) 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 4) 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 5) 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 6) 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 7) 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졸졸졸)
- 8) 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엇금엇금, 슬금슬금)

3. ③

▶㉔: 가벼운 눈의 속성상 바람에 금방 날아가는 것으로 보아 적절함
 ①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에 해당 ② 눈이 흩날리는 모습임 ④ 봄꽃이 아닌 눈꽃을 나타냄 ⑤ 눈꽃이 녹은 자리를 나타냄

5. ③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임. 정서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교술 갈래에 가까움

▶응, 헛갈리지 마!◀

작가≠소설 서술자, 작가≠시적 화자
 소설 서술자=작가의 대변자, 시적 화자=작가의 대변자

▶넣어둬, 패ئن 공략◀

국어 시험에서 주관적이나? 객관적이나?를 구별 판단하는 것은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객관적(있는 그대로)-누가 보아도 동일한 사실.
 *주관적-개인의 생각, 감정 등이 반영.

6. ⑤

▶㉔: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 도달한 성숙한 사랑을 의미함

7. ④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는 의문문 형식을 사용하지만 절제된 감정이 아닌, 벽찬 감정 혹은 감탄을 보여줌
 ① 눈의 노력→결실→그 이후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등 유사한 시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함 ③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 등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감각적 심상을 표현함 ⑤ 햇숨 같은 마음 등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에 대한 인식을 나타냄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ㄱ.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ㄴ. 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ㄷ. 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8. ①

▶수많은 인내(얼마나 많은 도전을)와 시련(미끄러지고~)을 통해서 정신적 성숙(아름다운 상처)을 얻을 수 있어.
 ② 꽃을 피우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③ 공동의 성취와는 관련 없음 ④ 내면의 평화와는 관련 없음 ⑤ 다양한 경험과는 관련 없음

10. ②

▶㉠은 고난, 시련, 장애물, 방해물 등과 관련된 의미임. 나머지는 결실과 관련됨

12. ③

▶겨울철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고 봄이 되면 그 자리에 봄꽃이 피는 것을 경험한 화자가 인내와 헌신을 피워낸 첫사랑과 정신적 성숙이라는 깨달음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함.

② 자연의 이치를 통해 구체적인 정서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오타, 1등급 조연◀

발문(문제에서 물어보는 말)에 '가장(!) 적절한 것'이 있다면, 선지를 다시 꼼꼼히 점검해보자. 정답 같은 선지가 있고 더 정답 같은 선지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더 정답 같은 선지를 고르고 덜 정답 같은 선지는 과감히 버려라!

13. ③

▶공간은 나뭇가지가 있는 곳으로 동일함.

① ②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에서 의인법과 설의법 사용. 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서 원관념인 봄꽃은 숨어 있고 보조관념인 '~상처'가 드러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의인법 vs 활유법 (★★★)

ㄱ.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ㄴ.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2.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 (★★)

ㄱ. 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푸른 강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ㄴ. 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뒹놀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강아지는 뒹논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응, 헛갈리지 마!◀

원관념 vs 보조관념 (★)

비유란,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이나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데, 여기서 전자를 원관념, 후자를 보조관념이라고 한다. 따라서 원관념은 비유되는 대상, 즉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을 뜻하고 보조 관념은 비유하는 대상, 즉 원관념이 잘 드러나도록 돕는 관념을 말한다. 가령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여"했을 때, 원관념은 '꽃'이 되고 보조관념

은 '내 누님'이 된다.

14. ③

① 봄에 피는 꽃과 첫사랑이 끝난 후의 성숙한 사랑을 연관 지어 설명함. ② 첫사랑이 끝난 후의 성숙한 사랑을 노래함. ④ 첫사랑의 허무함이 아닌, 첫사랑이 끝난 후의 성숙한 사랑을 노래함. ⑤ 겨울이 지나 봄의 피는 봄꽃을 노래함.

15. ①④

㉠: '도전', '춤추겠지'가 의인화된 표현임.

㉡: '아름다운 상처'가 모순된 표현임.

▶응, 헛갈리지 마!◀

모호 vs 중의 vs 모순 (★★)

*모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

*중의: 의미가 분명하나 2가지 이상임.

*모순: 2가지가 서로 일치되지 않음.

15. ①④

② 첫사랑의 영속성이 아닌, 첫사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암시함. ③ 희한이 아닌 감동임. ⑤ 눈꽃이 아닌, 봄꽃을 대상으로 함.

▶넣어둬, 패턴 공략◀

'구체적', '사실적', '현실감', '생생함', '의성어 혹은 의태어' 사용 등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다.

16. ①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은 반어법 사용. 나머지는 모두 ㉠과 같이 역설법 사용.

②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③ '찬란한 슬픔의 봄을' ④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⑤ '소리없는 아우성'

▶어머, 이건 외워야 해!◀

반어 vs 역설 (★★★)

ㄱ. 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꼼)

ㄴ. 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17. ④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에서 의문을 형식을 사용하여 감정을 강조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은 아님.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시의 전개 방식 (★)

ㄱ. 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ㄷ.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ㄹ. 대립적 전개

ㅁ. 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ㅂ. 선경후정: 경치+정서

ㅅ. 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

2. 빈출 비유법 (★★★)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줄줄줄)
-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18.③

▶윗글은 한겨울에 나뭇가지에 쌓은 눈을 통해 <보기>는 흔들리거나 젖으면서 피는 꽃을 통해 얻는 깨달음을 노래함.

① ④ <보기>에만 해당.

19.②

▶어조로 운율을 형성할 순 없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시적 어조의 종류 (★)

-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 4)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20.③

▶순수한 눈의 마음을 '햇숨'에 비유한 것임.

21.④

① 사랑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닌, 인내와 헌신이 필요함.
② 쉽게 사그라들 수 있는 대상은 '첫사랑'임. ③ '눈꽃'의 인내와 헌신으로 '봄꽃'이 핀다는 걸 볼 때 아픈 과정이 필요함.

22.④

다영: 시각적 심상은 '난분분 난분분'이고 '짜그락 짜그락'은 청각적 심상임.

마영: 시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어울리고 있음.

23.③

▶가상 등장 인물은 없고 화자는 혼자임.

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 ② '햇숨 같은 마음'

④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24.②

▶사랑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가)에 선 '가지'가 아닌, '눈'임.

25.⑤

▶㉠: 첫사랑의 아픈 경험임.

26.①

▶'나눈'은 의미없는 여음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음수 vs 음보

ㄱ.음수: 글자 수

ㄴ.음보: 끊어 읽는 호흡의 단위 (단순히 어절의 단위가 아님!)

2. 3음보 vs 4음보 (★)

ㄱ.3음보: 주로 하층, 빠름, 동적

ㄴ.4음보: 주로 상층, 느림, 정적

28.①

▶㉠은 시각적 심상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공감각 vs 복합 감각 (★★)

ㄱ.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ㄴ.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29.⑤

① 이상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대비는 없음. ② 첫사랑을 이루지 못한 아픔이 아니라, 첫사랑의 아픔을 그려냄. ③ 자연적 법칙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성숙을 말하고자 함. ④ 눈과 꽃 사이의 대립과 화해는 없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 대비라고 해서 반드시 반대의 맥락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두 대상 간의 차이점만 있어도 대비라고 볼 수 있다.

30.②

▶ <보기>의 화자가 나에게 하소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윗글의 주제인 '눈'은 꽃을 피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함.
 ⑤ <보기>만 청자가 '님'으로 명시적임.

33.⑤

▶ 첫사랑을 통한 정신적 성숙을 노래한 것임.

▶ **어머, 이건 외워야 해!** ◀

1.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 영탄법

감탄사 '아, 오, 아아, 오호라, 어즈버' 등을 사용하거나, 호격조사 '아, 야, 이여, 이시여' 등과 감탄형 종결어미 '-아라 /-어라, -구나, -는가' 등을 사용하여 강하고 깊은 감정을 드러낸다.

34.③

▶ ㉠와 '찬란한 슬픔의 봄'은 역설임.

② 반어 사용.

▶ **어머, 이건 외워야 해!** ◀

반어 vs 역설 (★★★)

㉠.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님을 보내지 않았다)

35.②

▶ ㉢: 눈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임.

36.④

㉠: 둘 다 공간의 이동은 없음.

㉡: 둘 다 비판적 태도는 없음.

▶ **어머, 이건 외워야 해!** ◀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 (★★)

㉠.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푸른 강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뛰놀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강아지는 뛰놀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 **응, 헛갈리지 마!** ◀

비난 vs 비판 (★)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문제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함
 (긍정적)

3-(2) 놀다리

1. ⑤

▶ 물질적 가치와 관련됨. 나머지는 전통적 가치와 관련됨

▶ **넣어둬, 패ئن 공략** ◀

자주 출제되는 선지 대립 양상

자연적 ↔ 인위적 / 객관적 ↔ 주관적 / 능동적 ↔ 수동적
 내재적 ↔ 외재적 / 추상적 ↔ 구체적 / 내적 ↔ 외적
 본질적 ↔ 현상(현실)적 / 자연적 ↔ 속세 / 물질적 ↔ 전통적

2. ④

▶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에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고 있는 작품 밖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함.

▶ **어머, 이건 외워야 해!** ◀

소설의 시점 (★★★)

㉠.1인칭 시점: 주인공 혹은 관찰자→작품 안에 존재
 (지문에 일단 '나'가 등장하면 1인칭으로 판단)
 ㉡.3인칭 시점: 관찰자 혹은 전지적→작품 밖에 존재
 (3인칭 전지적 시점은 모든 인물의 심리 서술 가능)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서술의 범위가 넓어서 많은 것(성격, 심리)을 서술할수록 독자는 그대로 수용 ↑, 상상력 제한 ↑

*서술자 내부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 외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3. ⑤

▶ 나무다리가 놓인 뒤 놀다리가 사람들에게 잊혀 버린 것이 되어 ㉢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에서 밀려나 있음.

4. ③

▶ 놀다리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보아 적절함
 ① 놀다리는 창섭의 조부님이 처음 놓으셨음.

5. ④

▶ 유구무언: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음
 ① 면종복배: 겉으로는 순종(順從)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음
 ② 점입가경: 일이 점점 더 재미있는 지경(地境)으로 돌아 가는 것
 ③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
 ⑤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음

7.③

▶ 신구 세대 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지, 변동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

▶어머, 이건 외워야 해!◀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 (★★★)

- ㉮.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 ㉯.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 8. ①
▶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아버지와 근대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아들의 간의 갈등.
- 10. ⑤
▶ ⑤처럼 아들이 자신의 뜻을 굽히는 건 아님.
- 11. ③
▶ ㉮ 거름이 아버지가 추구하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아들이 추구하는 근대적인 가치관과 관련된 것임.
- 13. ②
▶ ②와 ㉮는 부모님 은혜와 관련됨
① 노인 공경과 관련됨 ③ 형제애와 관련됨 ④ 부부애와 관련됨 ⑤ 도덕적 실천과 관련됨
- 14. ①
▶ 지주 외에 나머지는 땅을 통해 일을 하는 이.
- 18. ②
▶ 땅을 도구적 가치로 여기지만 비인간적이라고 볼 수는 없음
- 19. ③
▶ 전통적 가치를 보살피는 것으로 보아 ③이 가장 적절함
- 20. ④
▶ (라)에선 인물 간의 갈등이 이전보다 완화됨.
- 21. ②
▶ 아들은 아버지가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직접 피력함.
- 22. ③
▶ '땅이 무서서 어디루들 갈 텐구'에서는 사후세계가 아닌, 땅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을 알 수 있음.
- 23. ①
▶ ㉮정평: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인정하는 평판.
- 24. ④
▶ 창섭의 아버지는 창섭이 땅을 팔자고 하자 그 자리에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생각 좀 해봐야겠다고 함.
- 25. ②

- ▶ ㉮, ㉹: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하는 특성임.
- ㉽: 특정 인물이 아닌, 전지적 작가가 서술함.
- ㉿: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인물과의 거리감은 없음.

26. ①

▶ [A]는 서술자가 사건을 나열하는 형태로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고, [B]는 대화를 제시하며 극적인 보여주기 방식으로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직접적 제시 vs 간접적 제시 (★★★)

- ㉮. 직접 제시: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직접 관련된 어휘 사용. (독자의 상상력 자극↑)
- ㉯. 간접 제시: 인물의 대화, 행동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됨. (독자의 상상력 제한↑)

27. ⑤

▶ ㉿: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이 아닌, 제물을 차려 놓기 위하여 넓적한 돌로 만들어 놓은 상이다.

▶였다, 1등급 조언◀

국어 내신은 때로는 아주 단순한 기억력 테스트이기도 하다. 기억력 테스트 수준의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 위와 같은 어휘 문제는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교과서 날개 부분에 제시된 어휘는 반드시 정리하고 시험에 임하자.

28. ④

▶ 아버지와 아들 모두 성격의 변화가 없는 평면적 인물임.

▶어머, 이건 외워야 해!◀

평면적 인물 vs 입체적 인물 (★★)

- ㉮. 평면적 인물: 성격이나 가치관이 단일함.
(주로 '고전' 소설의 인물 유형)
- ㉯. 입체적 인물: 성격이나 가치관이 변함.
(주로 '현대' 소설의 인물 유형)

29. ②

▶ 아버지는 땅에 대한 애착심이 있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화자는 흙에서의 노동에 애착심이 있음. 둘 다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에 애정이 있음.

◆주제 저장소◆

- ① <플라타너스>: 고독한 영혼의 동반자인 플라타너스
- ②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국토를 빼앗긴 민족의 비통한 현실
- ③ <황무지>: 현대 문명의 비인간성 고발
- ④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통을 수용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
- ⑤ <별 헤는 밤>: 아름다운 이상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성찰

30. ②

▶ ㉮: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인물의 생각과 심리를 요약적 제시하거나 대화나 행동을 제시하는 극적 제시의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ㄱ: 서술자의 교체는 없음. ㄴ: 1인칭 시점에 해당. ㄷ: 서술자는 작품 외부에 있음.

31.④

▶'독시장발을 내놓는다구 해 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드라두 집을 팔아 살려구 덤빌 게다.' 통해 알 수 있음.

32.⑤

▶<보기>는 이웃의 삶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함을 추구하며 물질에 얽매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비판하는 것임.

<젊은 손수 운전>

*주제: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

*해제: 이 시는 현대인의 물질 문명을 대표하는 '자동차'를 소재로 하여 편리함을 추구하며 물질에 얽매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같은 근원적인 소중한 가치를 잃고 생활하는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도 보이고 있다. 물질 문명은 인간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도리어 그것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

▶응, 헛갈리지 마!◀

비난 vs 비판 (★)

ㄱ.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ㄴ.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문제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함 (긍정적)

33.①

▶㉠'시체'는 그 시대의 풍습·유행을 따르거나 지식 따위를 받는다는 의미이기에 '옛날'로 바꾸어 쓸 수 없음.

34.④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뿐만 아니라 서술자가 개입하여 직접 인물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한다.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소설의 시점 (★★★)

ㄱ. 1인칭 시점: 주인공 혹은 관찰자→작품 안에 존재 (지문에 일단 '나'가 등장하면 1인칭으로 판단)

ㄴ. 3인칭 시점: 관찰자 혹은 전지적→작품 밖에 존재 (3인칭 전지적 시점은 모든 인물의 심리 서술 가능)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서술의 범위가 넓어서 많은 것(성격, 심리)을 서술할수록 독자는 그대로 수용 ↑, 상상력 제한 ↑

*서술자 내부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 외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35.②

▶㉠의 '나(아버지)'의 태도와 '말이 없는 청산이요'의 화자의 태도는 자연친화적임.

①, ④, ⑤ 임에 대한 애정 ③ 효에 관한 노래

36.④

▶[A]: 외롭고 불안~, ④: ~기분이 시원하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인물의 생각을 서술함.

37.④

▶'아버지'는 '창섭'이 땅을 팔자는 제안에 고민 없이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게 됨.

38.②

▶㉠만이 가족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함.

▶어머, 이걸 외워야 해!◀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 (★★★)

ㄱ.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ㄴ.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39.②

▶㉠변리(邊利):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

40.④

ㄷ. 독자와 창섭 사이에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졌다.

41. ③

① 할아버지가 돌다리에 얽은 추억은 없음. ② 돌다리 대신 나무다리를 사용하길 바라는 마을사람이 많음. ④ 자신의 땅을 타인에게 소작 맡겨 둔 채 땅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지주들이 혼함. ⑤ 거름은 긍정적으로 금비는 부정적으로 봄.

42.⑤

▶땅을 확장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관에 가까우므로 아버지와 관련된 것이 아님.

43.②

① ③ ④ 인물 간의 갈등임.

44.②

▶타작: 곡식의 이삭을 떨어져 알곡을 거두는 농사일.

3-(3) 성난 기계

1.⑤

▶'얼마 후 인옥의 남편인 상현이 회기를 찾아온다. 그는 회기가 인옥의 수술을 거절했다는 말에 안심하면서,~'를 통해 '상현'은 '인옥'이 수술을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안 채 회기를 찾아왔다.

2.③